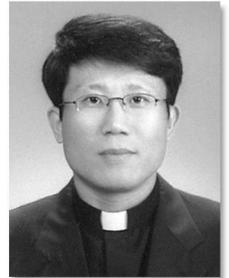


주일의 말씀

주님의 세례, 그 위대한 겸손



이상택 리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난 주일 우리는 나자렛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자, 즉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드러내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께서 당신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받으신 세례를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당신 사명의 수행을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어디 인류뿐이겠습니까? 우주만물 삼라만상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은 당신의 세례 즉 물에 잠기심으로써 개시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주님은 이것으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요르단강물에 잠기셨었습니다. 강은 땅보다 낮은 곳을 지나흐르고 강바닥은 땅바닥보다 훨씬 아래 놓여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은 강물에 잠기셨습니다. 강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겸손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겸손을 또한 지극히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찍이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의 무리에 끼여 그들과 꼭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가히 겸손의 철두철미함,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에 가장 어울리는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흔히 ‘야훼의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라,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상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당신의 겸손과 온유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겸손과 온유의 빛을 졌다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배우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이 갈수록 겸손과 온유가 실종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겸손은 흔히 굴종이나 무능으로, 온유는 쉽게 나약함이나 우유부단으로 치부되는 오만과 편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칠고 험악한 시대에 우리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그 위대함을, 온유의 그 위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더욱 기꺼이 메고 주님께 더욱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부러진 갈대를 확 꺾어버리기보다는 부드럽게 싸매어주고, 꺾져가는 심지를 혹 물어버리기보다는 정성껏 살려내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9)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루카3,21참조

이사 42,1-4,6-7 사도 10,34-38 루카 3,15-16,21-22

미신(迷信) 2

- 오늘의 운세 -

하, 요거 볼까? 말까?

교구 사목국

‘오늘의 운세’ -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세적인 이익과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다음 두 가지 질문에 우리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 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의 뜻을 찾고),
- ② “하느님의 뜻을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성찰(省察)하고 개심(改心)하는 것)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을 통해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변화의 목표는 당연히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 사랑의 관계이겠죠.

도대체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점쟁이의 입에? 손금에? 관상이나 옷들이 튀는 옷판에? 쌀알들이 춤을 추는 쌀판에? 아니면 사주팔자에? 아니면 관공지 비닐 천막 안에서 운명을 알려 준다고 추파를 던지는 흔들리는 백열전등 불빛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겨우 그런 것에 달려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제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도행전 16,16-18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 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 주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 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바오로 사도 일행은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네아폴리스라는 도시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바오로는 점을 쳐서 돈 벌이를 하는 귀신 들린 여인 한명을 만납니다. 그녀가 바오로 일행을 쫓아가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참 재밌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보에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목국에서 발간하던 신자재교육시리즈를 책으로 발간하지 않고 주보로 매주 연재합니다.

이와함이면

박성규 엘리자오





영성의 향기

오늘의 미사

주님 세례 축일

입당성가

481 요르단 강에서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네.

파견성가

1 나는 믿나이다

::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더 철저히 인간을 닮으려고 오신 하느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한 사랑은 하나되기 위해 사랑하는 상대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요한 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표현하시고 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서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만 준다면 그분은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머무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분께 대한 분명한 의식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리움이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어 봅시다. 단국대학교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타다 만 나무토막



하루는 사제가 시골 본당을 둘러보다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집에서 기도를 바친다며 신자들과 어울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노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공터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사제가 시뻘겍게 타오르는 나무토막을 꺼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나무토막은 점점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때 사제는 노인의 눈을 쳐다보며 타다 만 나무토막을 다시 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단국대학교

- 율겨온 글입니다. -

“함께 합니다.” 마감 : 1.17(일)까지 / 문의 : 250-3051, E-mail : samok@dgca.or.kr

교구 사목국에서는 2010년부터 전 교구민의 기도와 마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기도, 영성,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신한 생각들, 프로그램들,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 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9회 윤일제

-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9일기도 미사, 강론
- 일시 : 1.11(월)15:00~20(수)15:00, 장소 : 관덕정
- 강사신부 : 이상국(크리스로고), 손성호(요셉), 전광진(엘마노), 최경환(하비에르), 최재영(사뮈), 김태형(베드로), 이상혜(스테파노), 이강언(바오로), 임석환(스테파노)

가톨릭운전자 사도회 월례회

- 일시 : 1.13(수) 14:00, 장소 : 가톨릭교육원

대구대교구지역적인성체제배회 제7회성체신심세미나

- 일시 : 1.25(월)~27(수), 장소 : 한티교정의 집
- 강사신부 : 하성호(사도요한), 이흥근(바오로), 서덕교(야고보), 송재준(마르코)
- 지도신부 : 정기보(요한보스코)
- 문의 : 010-5493-1819, 회비 : 15만원

RENEW 선택

- 일시 : 1.29(금)~1.31(일), 장소 : 푸르실로 교육관
- 대상 : 선택 주말을 수강한 성직자, 수도자, 젊은이, 부부
- 신청방법 : 대구선택 카페 <http://cafe.daum.net/daeguchoice>
- 마감 : 1.22(금), 문의 : 010-3187-3145

양업고등학교가 펼치는 신나는 겨울캠프

- 일시 : 1.21(목)~23(토) 2박3일
- 대상 : 중 2학년 재학생(선착순60명)
- 문의 : 043-260-5076,78(www.yangeob.hs.kr)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삼덕성당옆집)히루피정

- 일시 : 1.24(일) 10:00~17:00
- 대상 : 누님과 함께 새마을, 새출발!(모든청년)
- 문의 : 010-2717-0363 싸이susikipddm
- ※ 1.17(일) 14:00 - 성체 조배 오세요.

어르신을 위한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자교육(구약편)

- 일시 : 1.12(화)~13(수)10:00~16:00
- 장소 : 대구 삼덕성당, 회비3만원, 접수:성바오로딸수도회
- 문의 : 통신성서교육원 02-944-0819~24/010-5584-8945

폰베틀알 프란치스코회 겨울 성소 피정(011-749-1670)

- 일시 : 1.29(금)~31(일), 장소 : 서울 한남동

어버이 성경학교 기록한 독서반 모집

- 일시 : 매주 수, 목 10:00-12:30
- 접수 : 1.2(토)~2.3(화), 면접 : 2.21(일)~23(화)
- 대상 : 어버이 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 마태오복음
- 문의 : 어버이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푸른평화 겨울방학 캠프

- 일시 : 1.11(월)~13(수)2박3일, 대상 : 초등학교
- 푸른평화겨울방학특강(8주과정, 주1회)
- 통합예술을 통한 집단치료
- 대상 : 초, 중학생, 주최 :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 문의 : 794-6022 / 010-3513-2225

학산아진중고등학교 2010년 신입생 모집

- 대상 : 중고등 미술업자 / 월금18:30~21:00
- 과정 : 중고등(2년)검정고시대비(국, 영, 수, 사, 과, 국사)
- 수강료 : 무료, 사신장, 등본, 수급자증명서1부(해당자)지참
- 모집기간 : 1.11(월)~3.31(수), 2-3월기초수업, 4월입학식
- 문의 : 634-723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월성2단지내

제29차 수도생활 체험학교

- 일시 : 2.4(목)~7(일), 장소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대상 : 고2~35세 미혼남녀 40명
- 문의 : 010-8353-2323, 참가비 : 4만원

5차원 전면교육 리더십 특별과정

- 일시 : 1.21(목)~23(토), 장소 : 경북청소년수련센터
- 주관 : 유아청 살레시오수녀회(다음카페 유아청 참조)
- 문의 : 010-3883-7004, 참가비 : 24만원

2010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
- 대상 : 만53세 이하, 문의 : 632-9800
- 봉헌미사 : 3.13(토) 14:00, 장소 : 월배성당

필리핀 해외봉사 & 여학연수 단체 출국모집

- 일정 : 2.24(수)~4.21(수)8주~5.19(수)12주
- 지역 대상 : 필리핀 바콜로드 / 대학생 및 성인
- 주관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문의 : 593-1273 / 016-804-4410
- ※ 캐나다, 호주영어연수 연계가능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월 모임

- 자격 :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 일시 : 매월 넷째주 화 10:00~17:00(첫모임1.26(화))
- 장소 : 교구청 푸르실로 교육관
- 접수 : 010-2635-0534 / 010-9620-4820

예로니모 성경대학(성주신입생 모집(4년과정))

- 일시 : 매주 화 오전반 10:00-12:00 / 저녁반 20:00-22:00 (1학기:3월-7월 둘째 주 / 2학기:9월-12월 둘째 주)
- 접수 : 1.31(일)마감, 문의 : 054-931-2374 / 010-5009-3131

가톨릭요셉발간회 강좌 '빛은 제2의 심장'

- 일시 : 매주 토요일 14:00, 매주 월 10:30
- 문의 : 476-7774(교재 및 도구 포함10만원)
- 홈페이지:www.foottather.com

취업/성업/봉사자를 위한 장애지도사교육생 모집

- 7.17(토) 자격검정시험대비(연령, 성별, 학력 무)
- 취업반 (20대~40대) / 창업반 / 봉사반(40대이상)
- 문의 : 대가대평교원526-3413 / 010-4142-4414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 대상 : 여대생(종교무관)
- 주소 : 대전서구 괴정동 114-3
- 문의 :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042-534-8876

1월 가나안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 1.17(일) 09:30~18:30
- 장소 :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 641-5678 / 010-8853-7458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오전11시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11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오전 11시30분	2대리구청 범어성당	구미지역 군홍후원회 미사	1월 11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1월 11일(월) 낮12시	성모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목) 오후2시	성모당

대구큰사랑요양병원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 한의사 진료 ▶ 중풍, 말기암,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지현로사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 룯 데 점 -

범어 램프란트 치과

원장 김대호 (마지아)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아가다 노인복지센터

아가다복지옹구사업소
요양보호사교육생모집(시지, 경산전지역 지원요양)
복지옹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고팔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 시지점 795-4242, 경산점 815-2700

척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너거리 628-4111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보석시계 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란
박복순(오탈리아)
한글네거리

범어네거리
코리아 알트란 | 뉴영남 호 텔
그랜드 호 텔
한글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